**한국 조직 내의 리더십 – 열정형**

“열정형” 리더십은 전문성에 기반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속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때, 돈키호테적인 속성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인간미가 있지만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자발성을 요청하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보이지만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오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유형의 리더가 자기 스타일을 너무 강조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열정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열정형 리더십 코드를 나타내는 대표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전이나 복잡한 상황 앞에서 오히려 힘을 얻는 편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 외부의 공격에 맞서 부하들을 지킬 줄 안다.
* 업무 과정에서 민주적인 태도를 보인다.
* 필요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

열정형의 리더십 코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재벌 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본인의 행동 방식과 비즈니스 형태는 열정형의 전형입니다. 과거 장학퀴즈 등으로 부각된 꿈꾸고 도전하고 패기 넘치는 이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 이미지는 현재의 비교적 젊은 그룹 총수인 최회장의 이미지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회장이 보여주는 열정형 리더십의 속성은 상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다른 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보다 계속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바로 자신이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열정형 리더십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특성에서 뚜렷이 부각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리더십은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식의 진짜 도전을 하는 느낌 보다는, 비교적 본인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지지를 받는 리더십 형태입니다. 열정형의 리더십이 리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형의 리더십을 보이는 리더는 자신의 기반을 다진 후 지속적으로 과제를 확장해 나가는 편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과제를 성취해 나아가는 기반을 사람에 두려 합니다. 열정형의 리더십은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난관에 부딪히거나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에 불굴의 의지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안되겠다 싶을 때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정리하는 편에 더 가깝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손실 한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중에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쉽습니다.